



성가복지병원 소식지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2021년
발행처·성가복지병원



성가복지병원 홍보단 모집

주변 이웃들에게 성가복지병원을 알리는데 함께 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 활동 내용**
 - ① 병원 소식지를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 ② 성가복지병원 카카오톡채널을 주변에 소개한다.
 - ③ 인스타 계정을 통해 성가복지병원을 팔로우하고, 해시태그를 달아 성가복지병원을 소개한다.(#성가복지병원) (①~③번 중에서 선택)
- 모집 대상** 성가복지병원을 사랑하시고, 홍보에 열정을 담아 주실 분 (단체, 기관, 가정 공동체, 개인)
- 신청 방법**
 - ① 성가복지병원 카카오톡채널 1:1 게시판
 - ② E-mail : bobinhuwon502@daum.net (이름, 소개, 연락처,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사랑 + 사랑 = 희망

지금 후원금의 10%를 증액하시면,
우리의 나눔이 모여 사랑이 두배가 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Tel. 02)940-1501 후원회
www.sgbokji.or.kr (문의 게시판)





성가복지병원 기도문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시어
성가복지병원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만나는 주님의 모습은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영이 저희를 도우시어
낮선 모습 속에 가려졌던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과 손길, 눈빛과 말씨로
병드신 주님의 육신과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해 가는 사명으로
초대된 저희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성가복지병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이가
편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고, 돌보는 저희가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파괴되는 지구를 되살리는 생명의 표징이 되는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성가복지병원의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 당신들께 의탁하나이다.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교회 성가복지병원

성가복지병원 소개

04 설립목적 · 운영방침 · 사업안내 · 운영방법 · 입원 및 외래진료

여는 글

07 함께라서 행복합니다_ 병원장 김 필리아 수녀

강생의 자리

- 10 사회사업과 이야기
- 12 기적의 일상_ 봉사자 한혜경(아네스)
- 16 새로운 시작_ 후원자 김○○(세실리아)

나눔의 기쁨

- 20 20년간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_ 외래진료 봉사 강윤석
- 23 작은 약속_ 후원자 미카엘라

감사의 마음

- 26 정년퇴직 감사인사_ 김경희(소피아)
- 28 '미래 꿈나무들의 희망 편지'_ 영훈초 2학년 '나눔반'

성가 소식

- 31 성가 소식
- 34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 내부 재단장 공사
- 35 성가복지병원 축복식
- 37 아름다운 지구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Contents 2021



표지
-
어버이날
캐네이션 전달

발행년 2021년 | 발행처 성가복지병원
전화 02.940.1500(대)
주소 0273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하월곡동)
홈페이지 www.sgbokji.or.kr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 성가복지병원



설립 목적

성가복지병원은 성가소비녀회의 영성과 사명을 실현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의무탁한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여 한 가족을 이루며, 그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운영 방침



성가소비녀회의 영성을 실현하는 의료복지 기관으로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의료서비스 (입원, 외래 등)는 무료로 한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지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사회심리적, 재활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전인 재활을 지향한다.

운영 현황

직원 현황

01

수도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전기 및 기관 기사를 포함한 기본인력

자원봉사 활동 분야

02

- 의료지원(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실)
- 차량(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 이·미용/목욕/청소/세탁/재봉/안내/도서/상담(정서지원)
- 영양과(설거지, 배식 등)
- 호스피스

지원

03

정부 지원 없이 정기 및 비정기 회원의 후원과 수도회 지원, 현물 후원으로 운영

병상수

04

- 2병동(21실, 72병상)
- 5층(8실, 33병상) : 510호, 호스피스 병동
- 6층(13실, 39병상) : 단기 환자 병동

진료과목

05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부인과, 피부과, 치과, 통증클리닉, 영상의학과 (내·외과를 제외한 과는 자원봉사 의사들이 진료함)

사업 안내

- 진료(외래, 입원)
- 호스피스
- 타 기관 연계
- 무료급식소(매주 화·토요일 점심)



입원 & 외래진료

■ 대상

차상위 계층, 노숙인, 행려환자, 무의무탁자, 외국인 노동자, 호스피스(암보험, 생명보험 가입자 제외)

■ 서류 준비

의사 진료 소견서(타 병원 입원환자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선별 방법

1. 외래환자의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회사업과 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원환자의 경우

사회사업과와 전화상담, 직접 방문을 통해 환자 상태,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상담하신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시간

화~토요일 오전 9:00~오후 4:30 (월·일요일, 공휴일 휴무)
사회사업과 전화 02) 940-1561~3 / 팩스 02) 940-1535

■ 외래 진료시간

홈페이지(<http://www.sgbokji.or.kr/>)에서 진료 일정을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병원장_ 김 필리아 수녀

2021년은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환자, 후원자, 직원분들도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봉사자분들은 봉사를 올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 병원은 지난 3개월(7·8·9월) 동안 병원을 휴업하고,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공사와 내부 재단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다른 병원들과 연계하여 입원환자들을 전원 시켰고, 10월 1일 병원 진료 시작일에 맞추어 전원 시켰던 일부 환자분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름 삼복더위에 굵은 땀방울이 온몸을 적셔도 묵묵히 일하시는 건설업체 직원분들의 모습과 삶의 고단한 현장에서도 밝은 에너지로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는 현장 분위기를 보며,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에어컨 없이 땀 흘리는 현장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가소비녀회 수도회 총회 의안에 따라 성가복지병원 재편 회의를 해오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환자분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과 질적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에, 스프링클러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재배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환하고 밝은 병원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병원을 열기 며칠 전 모든 직원이 함께 모인 날 저마다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땀 흘리며, 따뜻한 소망을 품고 함께 왔기에 이렇게 새로워진 일터, 보다 더 환대의 준비가 되어가는 성가복지병원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단장을 한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맞이하면서 그분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와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게 느껴집니다.

공간과 외관의 변화는 내부, 즉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꿈꾸고 일구겠다는 표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고 밝아진 환경에서 더 친절한 모습

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대하며, 귀하게 모실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성가복지병원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선한 에너지와 소망이 모여야만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1)는 말씀처럼 30여년의 세월 동안 성가복지병원과 인연을 맺어온 환자, 봉사자, 후원자, 직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다독이면서 노력해 온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셨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성가복지병원은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각오로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함께 애써주신 직원들과 공동체, 건설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생(降生)의 자리

“당신들도 내리시오.”
내리시오. 강생하십시오.
-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래덕 신부 -

사회사업과 이야기

사회사업과

성가복지병원은 일주일의 시작이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 월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화요일은 사회사업과 팩스로 각 기관과 공공의료 기관에서 보내오는 의뢰 건들이 가장 많기에 ‘오늘은 얼마나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문의를 하실까?’ 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칠 전 사회사업과를 찾아오신 김○○님도 시립병원 연계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외래진료를 오셨다가 수줍게 사회사업과 문을 열고 잠깐만 나와 보라고 하시더니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이번 달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후원을 하고 싶다고, 봉투를 전해 주셨습니다.

현재 근황을 여쭙보았더니 임대주택으로 입주하셔서 정신없이 바쁘셨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곳이라 장만해야 할 것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으신데 환자분을 위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수녀님~ 저는 현재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는데 제가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수녀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복지병원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한 상태였어요. 몸도 불편하지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곳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녀님들이 공공기관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퇴원 후에는 심터 공동체를 연결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이 저는 꿈만 같아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원 당시 힘들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WHO)도 건강의 개념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건강을 되찾고, 사랑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며, 저희 병원이 건강 회복과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기적의 일상

봉사자_한혜경(아네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인 1992년_시아버님께서 임파선 암 진단을 받으시고,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고령이고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호스피스 치료를 권하였고, 저희 가족이 모두 가톨릭 신자였기에 ‘모현 호스피스’ 수녀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수녀님들께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희가 당황할 때면 언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주셨으며, 환자와 온 가족이 선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컸던 저는 수녀님께 어떤 방식으로라도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간호학 전공자임을 알고 계셨던 수녀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갈 데가 있

다고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이 바로 성가복지병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 놓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모교 병원에서 일한 4년이 임상 경력의 전부였으며, 무엇보다도 힘들고 고된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떠났던 임상을 제 발로 다시 찾게 될 줄은 미처 몰랐었기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장은 시작할 용기도 의지도 없었던 저는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오겠다고 말씀드리며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님과 마주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곳에 제가 필요해서 부르셨다면 다른 일에 대한 미련은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해 3월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미뤄뒀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낯설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가복지병원 호스피스 봉사의 첫 발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입견 때문인지 환자들의 인상은 다소 공격적으로 보여졌고, 병실 환경과 역한 냄새에 그만 코를 쥐어잡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과연 오늘 이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낙심하던 중 어디선가 제 귀를 스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 너에게서 나는 것인 줄 모르느냐!”

온갖 욕심과 오만, 이기심, 위선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을 알고 계신 주님께 모든 걸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그

냄새와 역겨움이 사라졌습니다. 차차 성가복지병원 현장에 익숙해지면서 외래진료 의사를 비롯하여 환자 목욕, 청소, 안내 등 병원에서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봉사자들과 후원자분들 덕분에 무료진료가 이루어진다는 믿기 어려운 기적을 매주 경험했습니다.

첫날 제게 지정해 주신 봉사시간은 매주 토요일이었는데, 당시 아이들도 어렸고 주말이면 가족 모임도 많았기에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거의 빠짐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적극적인 배려와 오롯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때론 제 미약한 봉사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선 힘을 주시고 당신이 함께 하심을 깨우쳐주셨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런 확신은 더해갔습니다.

돌아보니 1993년 3월부터 2020년 2월, 코로나 방역으로 봉사활동이 중단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6층 병실에서 상근 간호사들을 돕는 봉사

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봉사를 통해 만났던 많은 환자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주위를 새롭게 보는 눈도 생겼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이 제가 받은 큰 은총입니다. 각박하고 때론 실망스럽기도 한 세상살이 중에 이곳에 오는 날이야말로 제겐 ‘피정’이었고, 돌아보면 배울 것 천지인 ‘학교’였습니다. 이 세상이 힘 있고 가진 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맡은 일을 꾸준히 해온 이름 없는 분들의 나눔 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임상에서 자아실현도 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대학 동기들과 저의 삶을 비교했을 때 일찍 퇴직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3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저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이곳 성가복지병원에서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습니니다.

로비에 걸려 있는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적힌 현판과 1층 성당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손 내밀어주시는 예수님상은 제 인생의 위대한 나침반과 큰 위로였습니다. 감사하고 좋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소비녀 정신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주는 성가복지병원의 앞날을 위해 이제는 기도로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한 휠체어 기부



작년 7월 여름
 후원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새 휠체어를 기증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저희 병원에 연결해 드리고 싶다는
 수녀님의 전화였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하여 구입을 했지만
 아직은 휠체어 없이 거동이 가능하여
 나중에 다시 구입하게 되더라도
 필요한 곳에 기증하고 싶다는
 후원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휠체어’기부를 통해 성가복지병원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진 세실리아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글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후원자_김 세실리아

1년 전 미리 마련해 두었던 휠체어를 이용할 일이 없어져 기증할 곳을 찾던 중 성가복지병원의 피아체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아픈 이들을 돌보시는 수녀님들을 존경했던 터라 다분히 숙연한 마음으로 병원에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루게릭 환자 세실리아입니다.

6년 전 초겨울,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신경과 외래 진료의 담당 교수님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병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속도로 보아 앞으로 1년 반 내지 길게는 3,4년 정도로 남은 수명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제게 침착하고 덤덤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측 못한 일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저는 괜찮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를 마감하고 책상에 앉아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진단받은 루게릭병에 대해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루게릭병은 인지능력과 감각신경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뇌와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불치의 희귀질환입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되면 영양공급을 위해 위루관 시술을 받게 됩니다. 결국

호흡 근육까지 힘을 잃게 되면 기관 절개술을 받게 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하게 됩니다.

발병 후 1~2년 내에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다 호흡이 멈추면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혼자서 등산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던 저는 다시는 산에 오를 수 없게 되었고 내 손으로 더 이상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었으며, 휴대할 수 있는 보조호흡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의 급격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과적 약물이 주어졌고, 수면제를 먹고도 잠드는 일이 고역이 되었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따금 의식을 잃게 만드는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제 자신을 자각하는 것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관의 심사를 받고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루게릭은 정말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정신과 영혼을 몸 안에 가두어 버리는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끝을 향해 걷고 있던 저를 뒤덮은 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라 타는 듯한 '메마름'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살아가야 할 가족들과 많은 것을 함께 해온 동료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를 악물고 일에 매달리는 족족 실패하기 일쑤였고, 사기를 당하고, 쌓아 왔던 노력들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없이 몸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지만 저는 세상일에 집착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의지만 있다면 노력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어 온 저의 어리석은 신념에서 비롯된 교만이었던 것을 뼈아프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그때 심지어 성호경을 그을 수도 없었습니다. 혀가 굳어버려 말은 어눌해지고 밥을 먹으면 기도로 넘어가다 열이 오르고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져 응

급실을 드나들며, 불규칙한 호흡을 견뎌내고 있을 즈음 병자성 시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남은 짧은 시간.. 몹시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가족 들 도움을 받아 매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분 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니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청하자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일에서만 성취감을 느꼈고, 지나치게 분주했으며, 숨을 허락할 줄 모르고 성공을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저를 하느님께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최근에 들어 저는 통증이 잦아들고 발음도 좋아지며, 20kg 줄 었던 체중도 회복되었고,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전보다 수월 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도 하고 있구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 르겠으나 설령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거부 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들일 것이고 저에게 고통들을 견디어낼 힘만을 허락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미가 삶에 미치는 위력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손수 돌보시는 하느님께 평화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김 세실리아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기쁨

너희는 이 작은 이틀 가운데
하나라도 영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 마태 18,10 -

20년간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외래진료 봉사(비뇨기과)_ 강윤석

2009년 12월 말 개업을 결정하고 삼양동에 자리를 정했을 당시, 출퇴근하면서 보이던 성가복지병원이 나와 인연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번듯한 주변 건물에 휩싸여 존재감이 덜하지만 당시에는 종암 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눈에 띄었던, 그렇지만 나에게에는 그저 ‘근무지에 다 와가는구나~’ 하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았다. 성가복지병원에서 비뇨기과 진료 봉사를 하던 후배가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서 진료 봉사가 가능한지 부탁을 해왔고, 이 병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월 1회였던 비뇨기과 봉사 진료를 2회로 해보자고 병원에 먼저 제안을 했고, 나중에 성 바로오병원 과장님과 연수를 마치고 온 후배 교수가 합류하면서 월 4회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어차피 내가 아는 분야이고 토요일 조금 일찍 서둘러 출근해서 1시간 정도만 좀 더 투자하면 되는 일인데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어언 20년이 되어버렸다.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반성을 하게 된다. 수원 부천 의정부 등 먼 곳에서 새벽 전철과 버스를 3~4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에게 2주간 지낼 만한 약을 드린 것 이외에 나는 무엇을 해드린 걸까? 정겨운 말이라도 한마디 해드렸을까?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렸을까? 어떤 때는 진료시간에 쫓겨서 (얼굴만 보고) 처방을 해드리고, 귀가 어두워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목청을 높여 “그냥 지난번 처럼 드릴게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는 처방전 주기 바쁠 때도 있었다.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원 공간이지만 진료 외에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이러한 나의 미안한 마음을 상쇄해준다.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진료 봉사에도 몇 번 참여해 보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입원병실과 상주하는 의사, 일정한 진료 봉사 의사, 우수한 의료장비, 체계화된 시스템 등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 종합적인 보살핌이 더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고, 따뜻한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이발봉사를 해드리는 것 등이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아직은 내가 이 사회로부터 외면받지는 않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20여 년간 진료 봉사를 한다는 것

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대단하시네요’, ‘힘드시겠네요’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의료 행위가 전면에 드러날 뿐이고 ‘진료’라는 글자는 떼고 ‘봉사’라는 글자를 집중해서 본다면 나는 그저 성가복지병원 전체의 일원일 뿐이다. 이곳에는 병실 청소나 진료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식사 준비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 다달이 후원해 주시는 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이다.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공동체 같은 곳이다.

‘과연 20년 동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이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내 능력이 닿는 만큼 참여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구나 싶어 다행이다.



성가복지병원 환자를 위해 간식 후원을
 꾸준히 해주고 계신 미카엘라 후원자님!
 어느 날 인터넷으로 구매한 개인 운동화를
 집이 아닌 후원회 사무실로 보내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간식을 보내주신다는 ... ^^)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 병원을 기억해 주시고,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고 계신 미카엘라님께
 특별한 인연이 된 계기가 궁금하여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약속

후원자_ 미카엘라

안녕하세요. 성가복지병원 가족 여러분~

저는 몇 년 전부터 성가복지병원의 후원자가 된 미카엘라라고 합니다. 일회성으로 후원할 곳을 물색하던 중 인터넷에서 발견한 성가복지병원에 전화를 걸어 무엇이 필요하신지 여쭙보았는데,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게 받아 잘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봉사자 어르신의 담백한 태도가 인상 깊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3 수능을 보기 하루 전,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집전해 주시던 신부님께서 본인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신부님 어머니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아직 학생이던 신부님은 어머니를 살려주신다면 사제가 되겠다고 기도를 드렸고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셔서 15년을 더 사시다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여러분도 주님께 청원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수능을 잘 보게 해주시면 남을 도우며 살겠다고 주님과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신나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을 관통하는 약속'을 했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내 능력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었 것 같았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도 그저 그때 한 번 뿐이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혼기는 이미 놓친 것 같은 데 연애도 계속 실패하고, 갈수록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던 수능 전날 신부님 강론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저도 남을 돕겠다고, 또 작은 약속을 드리며 청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을 처음 접한 때도 아마 제가 주님께 뭔가 부탁을 드릴 일이 있었거나,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께 드린 약속을 통해 저는 믿음을 이어왔고, 체험을 통해 남을 돕는 작은 행복도 배웠습니다.

모두 복된 성탄 맞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의 마음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입니까?

- 프란치스코 교황 -

정년퇴직 감사인사

전 간호사_김경희(소피아)

103세 노인의 피아노 연주자 알리스 헤르츠쑤머의 인생역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복한 집안 덕분에 레슨을 받으며 유망 피아니스트로 성장하였고, 결혼 후 아들을 낳고, 인생은 꽃길만 계속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남편을 비롯한 가족 대부분을 잃게 되고, 외아들은 살렸지만 65살에 돌연사합니다. 아들이 생전에 마련해 준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남은 노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곡조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더없이 행복하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아주 작은 시련에 무너지는 사람이 널린 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성공과 행복이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품성이 맺은 결실이라 믿으며 많은 현대인이 3루에서 태어나고는 3루타를 친 것처럼 구는 현실도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사회기반과 환경이 먼저고 개개인의 노력이 그다음입니다. 백 살 넘게 산 어르신이 어려운 상황에도 훨씬 초연하고 뛰어난 재치와 해학을 자랑합니다. 반면 다 체념하고 하루하루 늘어감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걸도 속도 더 빨리 병들기 쉽습니다.

2008년 12월에 성가복지병원에 첫 출근하여 2014년에 퇴직하였고, 그때는 간호업무에만 열중했었습니다. 그때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두 번째로 2015년 4월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지만 새로웠습니다.

업무 방법은 비슷하였지만 저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가복지병원이 본래의 이념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사목이 생각났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옆에 가지가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모습이 성가복지병원과 환자의 관계로 보였습니다. 나무가 태어나 열매와 꽃을 피워 사람과 곤충에게 유익함을 주고, 아름다움까지 선사하며 쓰러져서도 새로운 나무와 곤충, 새, 흙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이 닮았습니다.

성가복지병원에서 머무른 시간은 저에게 먼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고, 더욱더 긍정적으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성가복지병원 수녀님과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가복지병원이 주님께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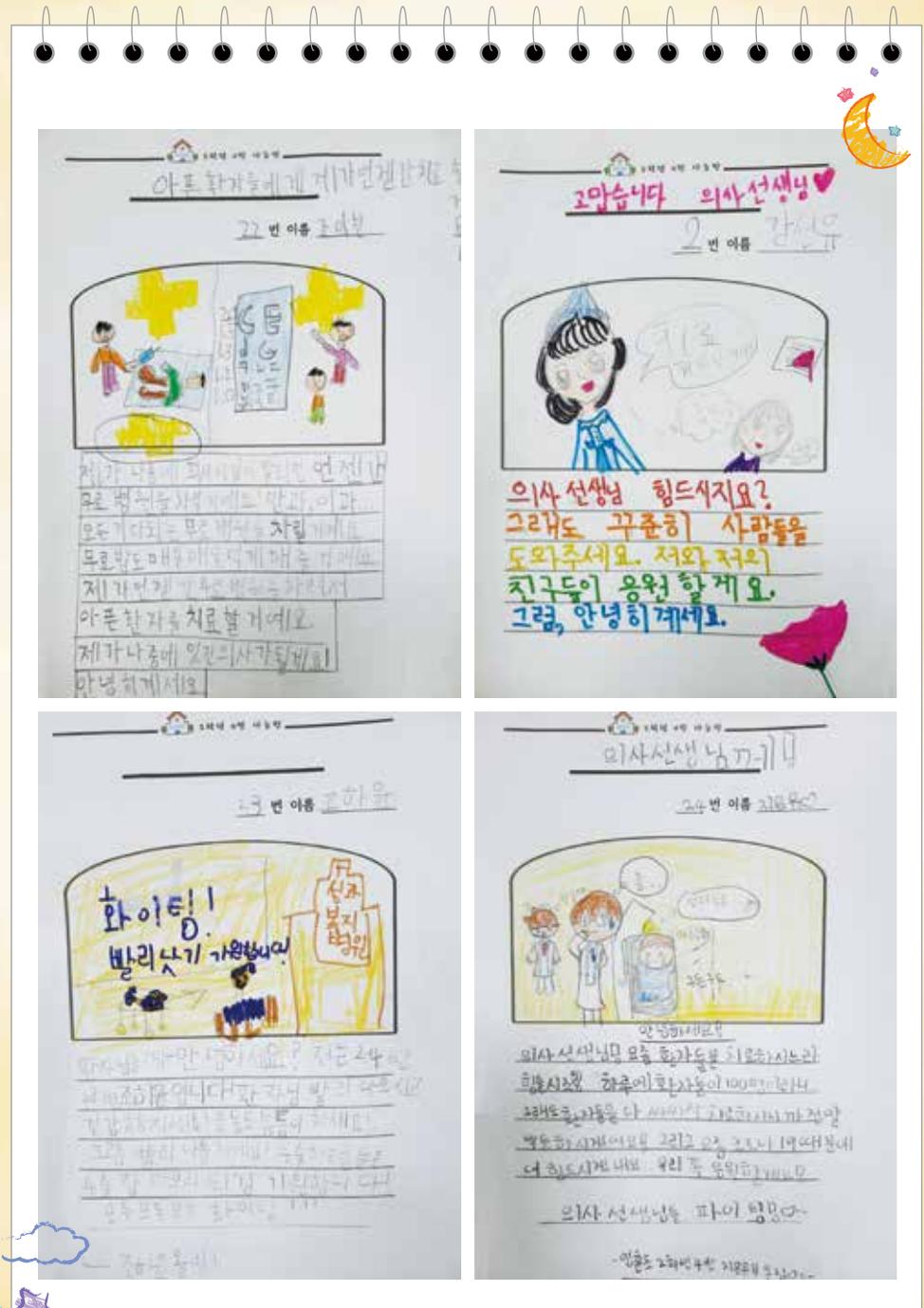
김경희(소피아)님은 정년퇴직 후 숲 해설가 과정을 공부하며, 동호회를 통해 자연 안에서 생태적 활동을 하며 지내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성가복지병원 외래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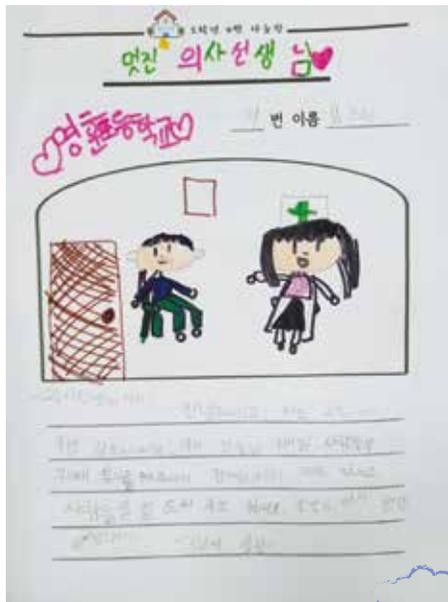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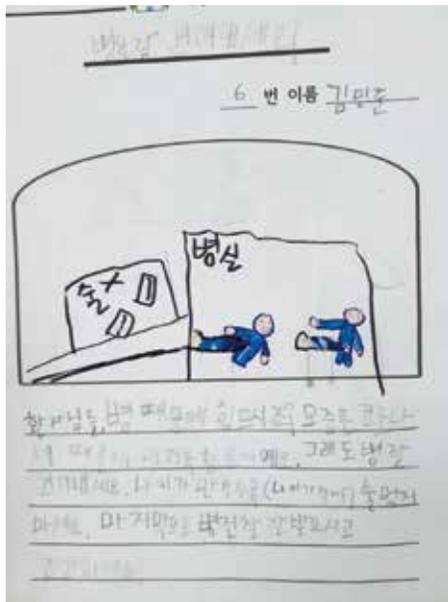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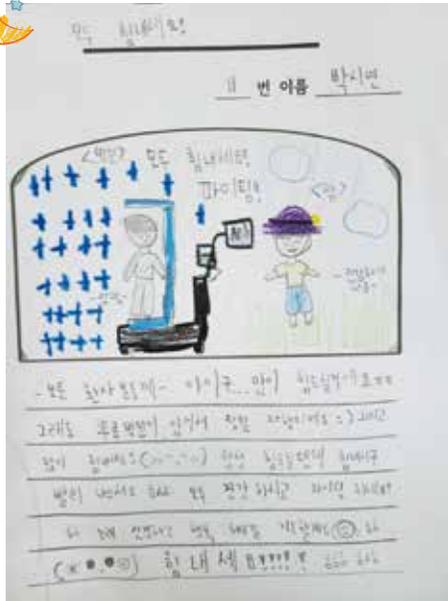
'미래 꿈나무들의 희망 편지'

영훈초등학교 2학년 '나눔반' 어린이들이 성가복지병원을 위해 응원의 목소리가 담긴 그림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들의 깜찍한 공연을 볼 수 없어 많이 아쉬웠지만 사랑을 가득 담은 그림편지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전해졌습니다.

세상 안에서 건강하고 밝은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가복지병원 가족 모두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





성가 소식

1월



02. 노숙인을 위한 거리 야간순회 '찜만두 나눔'



26. '2021소원나무' 새해 이벤트 당첨자 추첨

2월



09. 홈페이지 재편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후원방문



11. 제29차 '세계 환자의 날' 선물 나눔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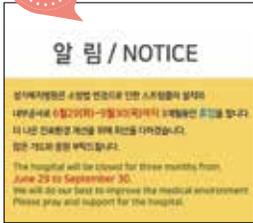
08. 어버이날 선물나눔 : (재)바보의나눔 후원



26. 의료현장 체험 온라인 만남 : 강주원 의무원장 &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2학년



6월



29. 병원 휴업 알림

7~9월



성가복지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 내부 재단장 공사



10월



01. 병원 진료 시작



14. 성가복지병원 & 경북대 학교 간호학과 협약식



23. 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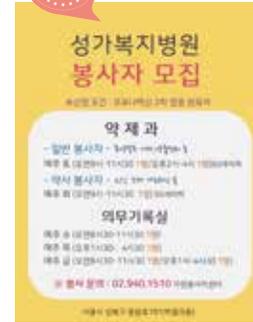


27. 에큐메니칼 '연대의 홀씨' 의무원장님 인터뷰



29. 병원 축복식

11월



03. 봉사자 모집 시작 (홈페이지/인스타그램/카카오톡채널)



17/25~26. 직원연수 1·2차

12월



03. 서울 남서로타리 클럽 후원방문



13~14. 직원연수 3차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 내부 재단장 공사

성가복지병원은 환자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진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 3개월(7~9월)간 병원을 휴업하고, 스프링클러 공사와 내부 재단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방법 변경으로 인해 본 병원은 2022년까지 소방시설(스프링클러)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과정



새롭게 단장한 성가복지병원을 소개합니다





사회사업과



경당



2층 중앙 대기실



3층 외래진료실



도서실 이전·확장



주방

성가복지병원 축복식

10월 29일 유경춘 주교님과 임경명 신부님의 미사 주례로 스프링클러 설치 & 내부 재단장 공사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소수 인원만을 초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은인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고 새로워진 공간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구 만들기

성가복지병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천 하나!

기후위기 피켓팅 & 줍깅
(줍깅: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환경 운동)



기후위기 피켓팅



병원 주변 쓰레기 줍기

실천 둘!

아름다운가게와 배달의민족이 함께하는 **굿바이 일회용 수저포크** 캠페인 참여



성가복지병원 직원들과 함께 모은 일회용 수저포크를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아진 일회용 수저포크는 무료 급식소,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단체 등 필요한 곳에 전달되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수저포크와 빈 용기를 들고 다니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천 셋!

아나바다 '의류 나눔' 기부받은 의류 나눔이 1층 로비에서 상시 열리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우리의 소비문화를 쉽게 사고, 버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헌 옷 수거함에 버려진 옷들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한 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헌 옷 수출국 세계 5위:한국), 그곳에서도 팔리지 않고 버려지는 옷의 절반은 쓰레기 산이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옷 한 벌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오래 입는 습관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 패스트 패션: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고 공급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
 ※ 코로나로 인해 헌 옷 기부를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뒤에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940-1501

2021 물품 후원자

2021. 12. 3. 기준

쌀, 식재료 외

강주원	이정희
고서형	이천미리내수도원
길음안나의집	이형순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이화영)	전교가르멜수녀원
김승연(세실리아)	조영균
김영준	종갓집
김은미	중림동성당
김인득(안나)	중림축산
김중오	지역록(바오로)
김혜자(데레사)	쪽방상담센터
나폴레옹	청년문간
녹십자의료재단	최난주
대성인력	최복자
동두천상회	친절떡방(우종순)
동일방앗간	푸드마켓2호점
들플 심터교회(김종곤)	푸드뱅크
박계형	하상바오로의집
박울하(레오)가족	한강성당
배중열	한국사랑나눔공동체
보라매병원	한살림
사랑터	현대정육
서동명	홍성오
서울남서로타리클럽	최석정
서한별	민순기
성곡수산	푸른농장
성모마음 정신과	김효재
성모자애드림힐	변정윤
신학근	
양휘자(레지나)	
여의도순복음교회	
월곡동성당	
유지혜	
이금숙	
이문동성당	
이미용(베로니카)	
이순옥	
이영석,이선형	

의류

공항직물
김승연(세실리아)
김은미
보라매병원
서울시청 지역돌봄팀
성북구청
전농무역(김성환)
한정희(스텔라)
홍종복

생활용품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명동신협
태창산업
반포성당

의료용품 외

(주)극동메디칼
국제로타리클럽
길음2동주민센터
김승연(세실리아)
김은미
대합성의료기
도미니코수도회
돈암동성당
박영숙
서울시청 지역돌봄팀
서울특별시 병원 간호사회
성모노인복지센터
임옥희
조부희
최희수
태창산업
한정희(스텔라)
라피엘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센터

기타

강경아 : 전자레인지
바오로딸 홍보마케팅팀 '책 나눔' : 도서
이중화 : 투척용소화기

2021 신규 후원자 명단

2021. 12. 3. 기준

(주)선원코린테크	박상욱	이문주	조민혜
(주)성진에이에스	박상진	이미숙	조성원
HYON YON SOO	박숙	이상엽	조유나
강래형	박순자	이상우	조해인
계윤지	박영옥	이상호	조희성
고준모	박예원	이서원	중앙대공돌이들
구영재	박장우	이선혜	지경숙
권연숙	박정숙	이성화	천기현
김덕환	박태병	이세영	최민형
김도연	박태선	이승자	최병습
김도연	박효숙	이승현	최승연
김도윤	박희준	이유림	최애라
김동갑	반성현	이윤정	최영철
김미성	복소희	이윤진	최용
김민순	손경순	이지수	최원화
김봉혜	손연경	이진영	최준규
김순자	송근희	이진영(유스티나)	최형규
김승연	송영숙	이차연	최홍렬
김양수	신종환	이현숙	최희수
김영순	안민선	이혜숙	한미연
김영희	안성자	이효기	허공순(데레사)
김우중	안태수	임경애	허은정
김정분	양세희	임낙범	홍우희
김정현	양정화	임동호	홍우식
김지선	어경순	임종준	황윤경
김현우	오양투자선물(주)	장종자	유경순
김현정	오은정	전정미	
김현지	우애의집	정경희	
김혜경	유경순	정광철	
김효경	윤명옥, 지역록	정기룡	
나호숙	윤문규	정기채	
남기호	윤영녀	정동성	
도미니코봉쇄수도원	이강민	정명순(수산나)	
박경숙(올리안나)	이명임	정혜민	
박경임	이명진	조경이	



♥소중한 나눔을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봉사신청 안내

홈페이지 봉사자모집 게시판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통해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인들을 위한 미사 & 기도 봉헌

후원자, 봉사자 분들을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미사 봉헌과 매일아침 · 저녁기도 시간에 기도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된 후원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1채팅창, E-mail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송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 @ 후원회 E-mail bobinhuwon502@daum.net
- 🏠 홈페이지 <http://www.sgbokji.or.kr/>
- 🗣 카카오톡 채널

카톡에서 성가복지병원 채널 추가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카오톡 실행하기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채널 추가하기

Ch

📷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gbokji/>

2020년 환자 진료현황

(단위: 명)

기간	구분	외래진료		입원 (연인원)	호스피스 병동 사망자	
	초진	재진	계			
2020년		402	19,872	20,274	5,697	54
1990~2020년		28,755	610,733	639,488	687,823	3,261

후원금(물품)내역 및 사용결과보고

(단위: 천원)

구분	수입		지출	
	금액	구분	금액	
법인 보조(후원금)	2,852,507	사업비	458,564	
기부 물품 (약품, 의료소모품, 급식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외)	258,842	인건비	2,188,566	
		관리운영비	332,238	
		잡지출	202,163	
기타 수입	102,330	재산유지조성비	32,148	
계	3,213,679	계	3,213,679	

후원 방법

- **자동이체(CMS) :**
직접 방문/홈페이지 통해 신청서 작성 ▶ 금융결제원에 송신 ▶ 매월(5일, 15일, 25일) 이체하는 방법
- **지로 :** 지로 용지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이용 시 :** 지로번호 7529458
- **온라인 계좌이체 :** 후원자가 은행에 신청하여 후원하는 방법

성가복지병원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17-25-0001-379
- 신한은행 140-000-247209
- 우 체 국 013474-01-000253
- 우리은행 048-068235-01-015
- 기업은행 006-000141-04-010
- 하나은행 289-810001-70404
- 신 협 01168-12-000238
- 제일은행 226-20-412973
- 농 협 051-01-184347
-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 영수증(소득공제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나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문의사항 : 후원회 전화 940-1501, 1502 메일 bobinhuwon502@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